제797호 천주교 전주교구 주보 1988. 2. 21. (1)

사순 제 1 주일

기도서 248면 (B해)

제1독서 : 창 세 9,8—15

제2독서 : I 베드 3,18—22

복 음 : 마 르 1,12—15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마르코 1,14—15).

□ 강 론

잘 준비합시다

박 병 준 신부

오늘은 사순 제 1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동안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40일동안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을 베푸는 시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재의 수요일에 머리에 재를 얹고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 버릴 보잘 것 없는 존재,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 깨달음으로서 우리의 회개는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회개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하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시련의 길을 걸으며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즉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보고 내 신앙을 철저히 반성해 보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달리는 자동차도 일년에 한번은 정비공장에 들어가 모든 부속품을 점검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가를 시험해 보고 잘못된 부속은 갈아 끼우고, 기름을 칠 곳에는 기름치고, 벗겨진 칠은 다시 칠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1년동안 생활하면서 하느님과 갈라졌던 사이를 화해로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진정한 하느님과의 화해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가져오게 하며, 그 길은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느님과 일치된 생활을 해왔는가를 반성함으로써 우리가 걸어야 할 지표를 다시 확인하는 길이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첫째 조건이라 할 수 있읍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꾸 커져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삭막해져 버립니다. 남이야 죽든 살든, 남이야 춥고 배고프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느님 중심에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 표시가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속 한가운데 하느님을 모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고귀한 하느님의 모상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쁘게 자선을 할 수 있읍니다. 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에 있지 않고 하느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사순시기에 더욱 느껴야 할 것입니다. 먼지나 흙으로 돌아가버릴 보잘것 없는 우리에게 하느님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더욱 뜻있게 보내기 위해 단식, 기도, 자선하는 시기가 되도록 합시다.

(평화동 천주교회)

소리 덕 담

정초에는 덕담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관습이다. 덕담(德談)이라 함을 "새해를 맞이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앞으로 잘 되기를 축복하는 말"이다. 아들을 낳으라, 승진하라, 돈을 많이 벌어라는 등의 그 사람에게 알맞는 반가운 말을 하여 들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세태가 바뀌어 득남하라는 이야기는 별로 매력이 없을 것 같고, 승진이나 치부의 격려가 매력이 있을 것같다.

글쎄다. 어찌해야 벼슬자리를 쉽게 얻을 것이며 돈을 잘 벌을 것인가? 60년대 이후의 풍조로 보아서는 한 자리를 쉽게 할려면 화약 연기가 올라야 할 것인데, 이는 너무나 잔인하고.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해야 할 터인데, 그 길은 너무나 힘이 들어 싫어할 것인즉 고민이다. 돈벌이야 쉬운 방법이 몇 가지 있다. 부동산 투기가 그 첫째요, 증권투자가 그 둘째다. 요즈음 졸부(猝富, 벼락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는 치들이 대개 부동산 덕분에 한몫 잡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다가 증권열기가 너무나 뜨거워 남편을 우습게 아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농촌에까지 그 바람이 불어 논밭팔아 증권을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한다. 이것이 도대체 문슨 조화이고 시운(時運)이란 말인가.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것인가 두렵기만 하다.

세상이 자꾸만 어수선해진다. 마치 비온뒤의 흙탕물처럼 맑지가 못하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하던 낱말 "떼강도"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비적(匪賊)이요, 산적이란 말인가? 지금은 우리 모두가 참 나를 찾아야 할 사순절이다. 혹시라도 이번 설에 내려온 아들 딸에게 덕담을 잘못 들려주었다면 우리 모두 편지를 쓰자. 새해에는 더욱 착실하게 열심히 살자고. 분수를 지켜 정도를 걷자고.

숲정이 산책

기도 많이 합시다

치명자산 개발 기공식 및 유해 봉송식

이루갈다와 유요한의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는 듣는 이마다의 마음에 거룩한 아픔을 선사합니다. 그리하여 이를 아는 사람들은 신앙의 고향을 찾듯 이 산을 순례합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방방곡곡에 퍼져 우리 전주교구 교우들만의 성지가 아닌 만인의 성지가 되어 만인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확장 개발해야 될 시기가 되어 다음과 같이 그 첫 삽을 뜹니다.

이루갈다와 유요한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 1988년 3월 5일 오후 2시
장소 : 치명자산 임시주차장 광장(약수터 앞)
1 부 : 주례—박정일 주교
　　교황대사 이반 디아스 대주교
　　공동집전—교구 사제단
2 부 : 기공식
3 부 : 봉송식—치명자산→전동성당
　　묘역 조성시까지 임시안치

□사순절 특집①

십 자 가 의 길

은총의 시기 사순절이 시작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순시기가 참으로 은총의 시기이기 위해서는 속죄와 보속을 위한 기도의 시기이어야 합니다. 교우들의 속죄와 보속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 '사순 특집'을 마련하였읍니다. 오늘은 그 첫 날로 전 세계 가톨릭 신심행사의 하나인 14처, '십자가의 길'에 대해 알아 봅니다.

＊ 십자가의 길 유래

십자가의 길(14처, 성로신공)이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의 중요 장면을 14곳으로 나누어 각 곳을 순례하며 묵상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걸으신 고통의 길(Via dolorosa)의 축소판인데 전설에는 성모님께서 매일 이 길을 걸으셨고 또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며 걸은 길이라 하나 직접적인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고 성녀 실비아(380년경)가 이 길에서 기도하며 순례하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처음 십자가의 길을 순례하는 방법은 오늘날과는 반대로 갈바리오 산에서 시작하여 빌라도의 집에서 끝났읍니다. 그러다가 6세기 초부터 효과적으로 순례하기 위하여 빌라도의 집에서 시작하여 갈바리아 산까지의 순서로 바뀌었읍니다. 이 순례지가 지리적 정치적 이유로 방해를 받자 유럽에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성지보호 임무를 맡은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제한되어 십자가의 길이 허용되었으나 1520년 레오 10세 교황님 때부터 전대사가 부여되기 시작하여 1686년 인노첸시오 11세 교황은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모든 성당에 십자가의 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열심히 수난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권하였읍니다. 오늘처럼 14처로 고정된 것은 1783년 클레멘스 12세 교황 때 부터입니다.

＊ 십자가의 길의 기도자세

종교의 목적에 대해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근원적인 구원, 즉 고통에로부터의 근원적 해방'이라 할 수 있읍니다.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루가 9,23)고, 즉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누구든지' 그리고 '매일'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을 대하거나 제외되기를 기피하므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므로써 해방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편함과 행복을 위해 주어지는(고통) 십자가(고통)로부터 도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근원적인 구원의 도구로 삼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손수 모범을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은 삶이 무엇이며, 고통이 무엇이고 또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를 가장 함축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이천년 전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으신 우리의 스승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므로, 20세기 이곳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례를 시작하십시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으려는 작은 마음을 속죄와 보속, 새 삶을 기원하는 제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세일 때 이 십자가의 길은 은총의 길이 될 것입니다.

＊ 실 행 방 법

성서는 니산달(NISAN) 13일(부활전 금요일) 오후3시에 우리 스승이시요 주님이신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읍니다. 이를 기억하여 사순절 매 금요일 오후 3시 치명자산의 '십자가의 길'을 순례합니다. 가능한한 함께 하시고 시간적 지리적 여건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각자 본당이나 가정에서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면 되겠읍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방법 안내」
①가톨릭 기도서 49면.
②주님과 함께(성바오로 출판사)
③모든이를 위한 십자가의 길(성바오로 출판사)
④십자가의 길(분도 출판사)

호암 어린이학원 신축
3월준공(영등동아파트앞)
88년도 정규반
원 아 모 집
하얀반—30명
파란반—30명
관인 호암 미술학원
원장 : 윤 호 우
(샤를르드푸꼬)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여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⑤ 2496 ⑧ 8653

전주시 서노송동 631—3
(코아백화점 앞)
현대 미용 학원
김 금 순
☎ 주 4—9206
야 74—1383

배달 탱크차 구비
신 속 배 달
공 열 주 유 소
전화 (0653) 52—8877
52—4748
54—6666
대표 장현순(루가)

교 구 소 식

사 순 절 행 사 안 내

*사순절 특별강론 : 일시—2월26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전주 중앙천주교회, 강사—이병호(빈첸시오) 신부
*사순절 매일 새벽미사 : 장소—숲정이 성지. 시간—새벽 6시
*사순절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치명자산

1. 시성 청원 준비위원회 : 27일(토) 오전 11시, 장소—교구청
2. 혼인강좌 : 28일(오전 9시30분), 장소—가톨릭센타, 참가비—4천원
3. 초등부 교리교사 피정 : 23일(화)~24일(수), 장소—천호 피정의집
회비—시내 8천원·시외 7천원, 준비물—세면·필기·미사도구
집결—23일(화) 오전 10시, 가톨릭센타
4. M. B. W 현대복음선교 묵상회 : 일시—25일(목)~27일(토), 천호 피정의집
, 회비—3만원, 집결—25일(목) 오전 10시30분, 가톨릭센타
5. 은혜의밤 철야기도회 장소변경 : 26일 저녁 11시—27일 오전 5시
미사는—5시30분입니다. 지도—이수현 신부
6. 전주 자치교구설정 50주년 기념미사(87년 10월 1일)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합니다
테이프 1개—2만원, 구입처—교구청 홍보국(85—0041~3)
7. 신체장애자 교육훈련생 추가모집 안내
①대상 : 16세~30세 남녀 신체장애자(농아자 포함)로서 직업 재활능력이 있는자
②훈련기간 : 1년~2년
③공과 : 금속공예·철보공예·편물과·자수과(증설예정과—제도과)
④특전 : 기숙사 완비·통원차량 운행
⑤문의처 : 인천시 북구 계산동 산 40 (032) 527—3711~2
서울연락소—서울시 종로3가 계동 67~31 763—2274
노틀담 장애자 교육원(노틀담 수녀회 운영)

♣ 잡 깐

교육열(熱) 누구를 위한 열의(熱意)인가?

한국인, 특히 우리 교우들의 교육열은 세계의 으뜸이리라. 교육을 위해서라면 굶주림도, 창피함도, 어쩌면 지옥행(行)도 불사(不死)하겠다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청정(淸淨)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자. 무엇을, 누구를 위한 열성인가? 그 뜨거운 열의가 자식의 진정한 의미의 교육에 대한 열의인가, 아니면 못배워 서러운 약자의 한풀이 인가?

교육열! 대단히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 열의가 교육의 근본 목적과는 관계없는 출세욕, 과시욕, 명예욕 등의 위장된 표현으로써의 교육열일 때는 자신과 자식, 나아가서는 사회를 파탄으로 이끄는 독소가 될 수 있다. 교육의 기본 목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이 기본 목적과 관계없이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방편으로써의 교육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 속성 때문에 겪어야 하는 '허무와 고독' '방황과 회의'를 넘어선 참 행복을 얻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엔 호화롭고 영예로워, 이웃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겠으나, 영혼 깊숙히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회의와 방황' '고독과 허무'의 소용돌이 속에 허우적거려야 한다. 감탄스러우리 만큼 처절한 교육열! 그러나 그 열성이 진정 자식의 행복을 위한 열성인가! 혹시, 못다이룬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무서운 욕심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졸업과 입학이 엇갈리는 이 시기! 교육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

요십이 (759) 김병오

□ 1분 명상

저녁에 주의 기도를
한 사람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샤를르 뻬기

명동피부과의원

영어로 노래·율동·역극·회화 등
사단법인 한국라보(LABO) 회원 모집
모집대상 : 유치원생·국민학생·중학생
접수처 : 구, 서중로타리 (호남웅변학원 내)
연구원 : 박경애(안젤라)
☎ 3—3284 · 72—4417
3—4766(야간)

웅변을 배웁시다. 발표력을 기릅시다
88. 유치반 원아모집 및 방학특강반 모집
호남웅변미술학원(구 서중학교 로타리) 3—3284
새호남웅변미술학원(전주역 앞) 4—3948
효자웅변종합학원(효자동 쌍용아파트 앞) 83—8331
원장 유병철(베드로) 원감 박경애(안젤라)

정 기 총 회 소 집 공 고

신협법 제21조및 정관 제32조에 의거 제15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저 소집 공고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1. 개최일시 : 1988년 2월 27일(토) 오후 1시30분
2. 개최장소 : 전북예술회관 4층 공연장
3. 부의안건 : 8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외 10건
4. 기념품 증정 및 경품추첨

*총회참석시 조합원통장·주민등록증·인장 지참

1988. 2. 1

전주 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유 석 종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 민 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김 진 룡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 익 도

☆ 반미사안내 : 24일 오후3시, 14반—유정자(85—5781)
1. 단체장 피정 : 22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피정의집, 출발—성당 9시30분, 회비—2천원
대상—성체회 봉사자·구역반장·단체장
2. 유아세례 : 26일(금) 10시
3. 십자가의길 기도 : 사순절동안 매주 금요일 어머니미사 후
4. 공소미사 : 다음주(28일) 오후 4시30분
5. 모임 : 하늘의문 꾸리아—오늘 오후 2시
성모회—26일(금) 어머니미사 후
재속형제회—다음주일 오후 2시
6. 중학교 교리개강 : 다음주일(28일) 학생미사 후
중학생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7. 금육 : 26일(금) 금육일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160,510원 교무금 : 732,7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 현 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 완 영
수녀원 76—0961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 3월 4일, 신부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영적·물적예물 사무실 접수)
1. 십자가의길 : 공식미사 15분전 실시합니다
2. 금주는 선교주간 : 꾸리아회의—오후 2시
3. 차주는 애령주간 : 선영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운영위원회의—차주 공식미사 후
4. 금성회 : 차주 공식미사 후
5. 금암회 : 23일 저녁 6시
6. 안나회 총회 : 25일 오전 10시30분
7. 전신자 교육 : 제목—본당은 우리
일시—3월 1일, 장소—본당
8. 금주복사 : 정문영·강남수 차주 : 윤기한·최장수
9. 금주봉헌 : 박영주 부부 차주 : 강정일 부부
10. 미사안내 : 로사리오의 모후pr 차주 : 정의의 거울pr
□ 지난주 봉헌금 : 750,410원 교무금 : 547,0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 태 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 상 렬
수·유 72—1222

☆ 축! 이세바스티아나 수녀님 종신서원 : 24일, 광주
1. 오늘모임 : 성모회—공식미사 후
2. 금주모임 : 안나회—24일 오전 11시, 만나회—24일 오전8시, 전례분과—25일 오후8시, 구역·반장모임—26일 오후2시
3. 레지오간부 교육 : 오늘(21일) 오후 1시30분
대상—각 쁘레시디움 간부 4명, 간부후보자 2명
강사—김동준 신부님외 2명
※ 꾸리아 회의도 겸하여 있음
4. 수녀님 인사이동 : 이세바스티아나 수녀님(25일 이동) 그동안 수고 많으셨읍니다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 순 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 영 철

☆ 환영합니다 : 강신문(벨라뎃다)·문명희(마리아)·진안숙(까리따스) 수녀님께서 2월24일 부임하십니다
☆ 수고하셨읍니다 : 서현정·오광심 수녀님
1. 사순절 십자가의길 : 금요일 어머니미사 후와 공식미사 30분전에 있음
2. 금육 : 사순절동안 매주 금요일
3. 여성단체 연총 피정실시 : 28일 오후 2시, 성당에서 출발, 준비물—미사준비·필기도구·기타, 장소—천호피정의집 ※ 신청 못하신분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4. 청년연합회 피정 : 27~28일
장소—신풍성당·백자공소
5. 중·고학생 피정예정 : 24~25일
6. 구역모임 : 23일—팔복1구(한상갑·조용기)
24일 나눔잔치—동산1구, 26일—성덕(강용준·안기섭)
7. 모임 : 꾸리아 회의—오늘 공식미사 후
구역장 회의—25일 오후 7시30분
사목회·모이세회—차주 공식미사 후
8. 청소 : 은총의어머니 방문 : 평화의모후—토 3시
9. 생활교리 : 공식미사후 교육관(수녀님 지도)
10. 금주전례 : 해설—손택규, 독서—①임선홍 ②김진순
차주전례 : 해설—김택천, 독서—①조용기 ②최병유
□ 지난주 봉헌금 : 262,580원 수요헌금 : 27,420원
교무금 : 192,00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 태 윤
수녀원 4—1142 사목회장 소 병 을

1. 예비교우 환영식 : 공식미사 후, 강당
금요반도 참석바랍니다
2. 오늘은 교무금 봉헌주일입니다
3. 청년회 월례회 : 26일 오후 7시(강당)
4. 청년 레지오·천상 은총의 어머니 창단
단장—김미경, 부단장—소대성
5. 금주전례 : 해설—김혜숙·심상기
독서·기도—하늘의문pr 주관
차주전례 : 해설—이기일·김은식
독서·기도—천사의 모후pr 주관
6. 본당청소 : 인자하신 어머니pr—7일 오전 11시
□ 지난주 봉헌금 : 240,251원 교무금 : 123,000원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 궁 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 규 철
수녀원 3—9567

※ 새로 부임해오신 백보나 수녀님 환영합니다
1. 꾸리아 월례회 : 공식미사 후
3. 초등부 교리교사 피정 : 22일~23일—천호에서
개학—28일 오후 2시
3. 구역미사(오후 8시) : 23일—진북1동 1구
24일—동양아파트, 25일—진북2동 2구
4. 27일 : 제대회—오전 10시, 병자봉성체—오후 4시,
유아세례—오후 5시30분
5. 다음주 신협 정기총회 : 오전 11시30분
6. 신앙강좌 : (3월 3일~5월 26일)
매 목요일 오후 8시, 신청바—3,000원
7. 금주 본당청소 : 화—순결하신 정녀, 토—매괴의모후
8. 미사안내 : 하늘의문
9. 금주전례 : 해설—강원모, 독서·기도—이철수·김시자
봉헌·기도—서창원·한정희
차주전례 : 해설—강원모, 독서·기도—송용호·김복희
봉헌·기도—강병조·정명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 용 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 병 문
수녀원 3—9236

1. 오늘의 모임 : 안나회—21일 공식미사 후
2. 금육재 : 사순절 매주 금요일
3. 성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4. 십자가의길 : 사순절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5. 토끼저금통 성미주머니 가져가세요 : 구역장님
6. 유아세례 : 28일 저녁 7시
6시30분까지 서류신청 (주민등록번호)
7. 판공성사 성서읽기 : 요한복음 전부
8. 주일학교 고학년 피정 : 26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까지
9. 금주의 모임 : 자모회—25일 11시 미사후
10. 사순절동안 극기·희생 단식한 몫을 뒷편 봉헌함에 속죄의 예물로 봉헌하세요
11. 다음주 모임 : 꾸리아 월례회의—오후 2시
12. 금주전례 : 해설—최명자, 독서·기도—나기수·조미자
봉헌—한갑용씨 부부, 안내—이진호·박동철
차주전례 : 해설—안남근, 독서·기도—윤철현·한복순
봉헌—박천수씨 부부, 안내—경화중·김진영
□ 지난주 봉헌금 : 573,405원

*인 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85—7440